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 의원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거지역 인근까지 건립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고, 허가가 지속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입지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행정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같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적정성, 환경 영향,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단계에서의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건의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